



# 드라이버는 쇼? NO! 프로도 드라이버로 돈 번다

앞세워 강한 스윙을 구사하는 이상엽은 장타를 펴펴 날리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형편 없었다. 18홀 경기에서 OB(Out of Bounds) 서너 방은 기본이었다. 1년에 공식 대회에서 낸 OB가 30개를 넘었다.

4월 17일 끝난 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사흘 동안 선두권을 달린 이상엽은 흥미로운 선수다. 그는 2016년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정상에 올랐다. 그해 상금랭킹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한번도 상금랭킹 10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원인은 드라이버 샷 불안이었다. 큰 체격을

매치플레이는 더블보기를 해도 해당 홀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모 아니면 도' 전략이 통하는 게 매치 플레이다. 매치 플레이 우승 때도 이상엽은 OB를 적지 않게 날렸다. 대신 버디도 많이 잡았다. 하지만 프로 대회는 대부분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다. 이상엽의 경기 스타일로는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 드라이버 비거리 짧아도 정확도 높으면 치명적 무기

프로 대회에서는 버디로 타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수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PGA투어에서 통산 4승을 올린 케빈 키스너는 이상엽과 달리 드라이버 샷 정확도가 아주 뛰어나다. 그는 드라이버 샷 비거리는 PGA투어에서 바닥권이다. 지난 시즌에 167위, 올해는 179위다. 대신 정확도에서 올해는 6위에 올라 있을 만큼 빼어나다. 키스너는 비거리가 짧은 탓에 많은 버디를 뽑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더블보기 이상 스코어는 거의 만들지 않는다. 키스너는 뜻밖에도 매치 플레이에도 무척 강하다. 그는 PGA투어 텔 매치 플레이에서 최근 4번이나 4강에 진출해 우승 한번, 준우승 2번을 차지했다. 매치 플레이에서 키스너의 전략은 이상엽과 다르다. 버디로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할 때를 기다린다. 버디는 많지 않아도 실수를 하지 않는 그의 경기 스타일이 매치 플레이에서도 통한 것이다.

## 쇼트게임과 퍼팅만 잘하면 능사?...

많은 레슨 전문가들은 쇼트게임과 퍼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코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쇼트게임과 퍼팅이라는 주장이다. 보기 플레이 아마추어 골퍼가 18홀 라운드를 하면 정규 타수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는 건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그린 적중률은 30%를 넘지 않는다. 그린 주변에서 처리하는 샷이 15타가 넘는다는 뜻이다. 그린에서 한 번의 퍼트로 훑아놓은 건 5번 미만이다. 따라서 전체 퍼트 개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개다. 그린 주변 쇼트게임과 퍼팅이 50타에 가깝다. 90타를 쳤다면 56%에 이른다. 드라이버는 고작 14타에 불과하다. 16%에 그친다. 그렇다면 드라이버 샷의 중요성은 쇼트게임과 퍼팅보다 낮은 걸까.

이상엽과 키스너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드라이버 샷은 14번뿐이지만, 드라이버 샷의 영향은 홀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파 4홀이나 파 5홀에서 티샷 OB가 나면 아무리 잘해봐야 보기다. 보기도 최상의 결과고, 더블보기만 해도 감지덕지다. 보기 플레이 수준의 경기력이라면 트리플보기 이상 스코어가 나오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드라이버 샷 실수는 대체로 만회가 불가하고, 만회한다 한들 한계가 있다.

## 드라이버샷 실수는 만회 어려워... 심리 위축도 부담

반면에 쇼트게임과 퍼팅 실수는 1타를 잃는데 그친다. 또 다음 샷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다. 파 4홀 그린 주변에서 친 세 번째 샷이 실패해도 그다음에 잘 붙이면 보기가 된다. 물론 파 기회를 놓친 건 맞지만 실수는 만회한 셈이다.

드라이버 샷 실수의 더 큰 위험은 심리적인 위축이다. 드라이버로 친 티샷이 OB가 나가거나 페널티 구역으로 가버리면 골퍼는 낙담한다. 좌절감에 사로잡힌 플레이어는 다음 플레이도 영향을 받는다. 드라이버를 잘 치면 플레이어의 자신감이 생긴다. 사기가 오른다. 물론 이런 자신감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다음 샷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쇼트게임과 퍼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습가가 타수를 줄이려면 쇼트게임과 퍼팅 연습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력 수준을 높이려면 일단 드라이버를 잘 쳐야 한다. 연습장에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드라이버 연습에 매달리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드라이버는 쇼가 아니다. 프로 선수도 드라이버 샷 덕분에 돈을 번다.

